

인사말씀

불교문화와 학술 교류를 통해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고 불교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어느덧 서른일곱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거듭할수록 의제 선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양국이 지혜를 모으기 위한 반가운 만남은 선대의 뜻을 수승하게 이어받아 더 나은 불교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대인의 삶에서 종교에 대한 관심은 점차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문명과 기술, 자본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시대와 사회가 정신의 삶을 등한시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종교인의 책무를 다시금 돌아보며 깊게 성찰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년도 주제인 ‘불교신앙의 다양성’은 시대를 읽어가는 지혜로운 대안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정진에는 다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국의 참가자 역시 다양한 의례와 의식, 그리고 방편의 차이는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실천하는 전통과 맥은 놓치지 않아 왔기에 더욱 더 조화로운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성은 불교신앙을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며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스스로 다가오게 하고, 현대인들을 정신의 삶으로 친절하게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불제자인 우리는 참된 깨달음만이 중생을 구제하고 평화를 이룩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기의 세상에서 더 많은 대중이 불법과 소

중한 인연을 맺는 것이야말로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자명한 수순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 우리는 각 종단, 계파가 지닌 각자의 다양성이 불교가 맞닥뜨린 ‘현대’를 극복하는 데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의 대회가 후대에 유산으로 회향될 수 있기를 고대하며, 89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 평간사에서 본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주신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후지타 류조 회장을 비롯한 임원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일본과 한국 불교지도자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고마움을 드리며, 오늘의 합심과 실천이 양국을 넘어 세상 모두가 맑고 향기로운 정토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6월 17일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합장